

‘낭만 항구도시’ 목포 관광객 급증

지난해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 전년比 50% 증가 ‘맛’ 브랜드화 등 원인…1천만 관광시대 사업 속도

‘낭만 항구도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목포시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은 2017년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500만 관광객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늘어난 관광객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민선 7기 목포시가 ‘낭만항구 목포’라는 도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맛의 도시 브랜드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광 정책을 추

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매년 전국 지자체별로 관광객 집계를 위해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광지점을 지정·승인한 후 유료관광지 입장객, 무료관광지, 무인계측기 등 객관적 통계 지표를 통해 파악된 관광객 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의 순천만 정원·습지는 60만명, 여수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는 80만명 넘게 급감한 반면, 목포시는 평화광장 바다분수 41만명, 북항노을전망대 34만명, 유달산둘레길 19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둘러본 곳은 갯바위보행교 42만명, 춤추는 바다분수 40만명, 자연사박물관 3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시가 자체 집계한 올해 1분기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통계를 보면 근대역사관 1·2관을 찾은 관광객이 4만71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인근 동본원사도 90% 증가한 2만8천652명, 바다분수는 9만1천8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레트로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희네슈퍼는 5만6천408명, 유달산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1만1천492명, 가톨릭 목포 성지 1만1천434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맛의 도시 브랜드화, 국제슬로시티 가입, 제1회 섬의 날 행사, 9-10월 주말(금·토·

일요일)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맛의 도시 브랜드화는 우수한 목포 식재료와 음식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 상품화해 ‘맛’이라는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슬로시티의 경우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목포 원도심지역은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힐링·감성 여행지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전통문화와 슬로푸드가 보전된 외달도·달리도는 어촌 뉴딜 300사업과 조화를 이뤄 국내 최대 바다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여름철 관광객을 끌어 모을 계획이다.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8-10일 3일간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를 제



목포의 대표 관광지인 근대역사관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근대역사관을 찾은 관광객이 4만71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목포시 제공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모든 축제, 공연, 문화예술행사를 한데 묶어 가을에 집중 개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예약의 도시 낭만항구 목포의 정취에 빠지도록 만들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만의 맛, 여유와 섬, 문화·예술 등 특별한 매력을 상품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승마 체험학습 기회 제공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10회기로 영광승마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승마교육을 실시한다.

영광승마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승마교육과 함께 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정경일 영광군승마장 교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받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형진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승마교육을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준 영광군 및 영광승마장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욕구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꿈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개인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공부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주변에 학교 밖 청소년 및 집에만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061-353-6188)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영광=김동규기자



화순의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설렘화순 버스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운주사, 고인돌 유적지, 임대정 원림 등 다양한 관광지를 만끽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제공

‘설렘화순 버스투어’ 인기 폭발

콜라 타는 재미·관광화순 매력 호응…예약률 70%

화순군이 운영 중인 ‘설렘화순 버스투어’가 예약률 70%를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화순군은 9일 “지난 3월 23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설렘화순 버스투어’가 지난 5일 현재 예약률 70%를 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지난 4일과 5일 어린이날 연휴에 예약률 93%를 기록하기도 했다.

화순을 찾은 관광객들은 “화순적벽과

화순의 곳곳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풍광에 잔뜩 취해간다”며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많은 추억을 담아 간다”고 호평을 쏟아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화순적벽을 중심으로 화순의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한다.

운주사, 고인돌 유적지, 임대정 원림, 연둔리 숲정이 등 화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와 함께 화순적벽을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화순적벽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동부권과 서부권 코스로 나눠 운행한다. 여기에 화순적벽만 둘러보는 ‘설렘화순 적벽투어’도 운영하고 예약 없이 방문한 관광객을 위해 현장 신청을 받아 운행하는 ‘화순적벽 서틀투어’도 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수·토·일요일 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투어를 원하는 사람은 2주 전 오전 9시부터 화순군 버스투어 누리집 (<http://tour.hwasun.go.kr>)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이병노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공무원 분야 ‘신지식인’ 선정

이병노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이 지난 8일 열린 ‘제33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공무원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 국장은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적극적인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국장은 담양에서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식품유통사업소장, 투자유지단장,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역임하며 담양군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을 해결해왔다.

특히 투자유지단장을 맡을 당시 민자 732억원을 유치해 현재 담양의 신흥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에 크게 일조했다.

메타프로방스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을 모티브로 하는 담양 속 작은 유럽 마을로 연간 3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전남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7만6천평 규모의 담양에코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100여개 기업과 2천 5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1천500여세대를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원형 주거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공헌했다.

현재는 초대 자치혁신국장으로 담양군 7개 부서를 맡아 군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주민 소통 행정으로 군정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 내외의 크고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며 포용과 혁신 리더십으로 공직문화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병노 자치혁신국장은 “남은 공직생활 동안 담양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도시 담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교육청,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93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홍보 활동과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전문강사 임근희 소장을 초빙해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의 가치와 청렴’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함양과 청렴의 중요성에 관해 사례위주의 토론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대 교육장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청렴 홍보 활동과 청렴 생활화 실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ол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만원
- 급매 - 7500만원(일시불)
- 문의. 010-6834-7400